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소상공인 성장 발판

전북경진원, 대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 매출... 단 3개월만에 1억8300만원 성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이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진원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콘텐츠 제작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지원한다.

11번가 등에서 할인쿠폰을 활용한 판촉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대형 플랫폼 입점 지원에는 총 54개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8개사가 우선 선정되었다.

이후 11번가 MD와의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각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평가 후, 최종 4개사가 입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현재 최종 선정된 4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 판매품목의 특성과 시기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모션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개사는 이미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나머지 2개사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음에 위치한 감자탕 제조업체는 6~7월 두 달간 진행된 프로모션에서 약 100백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전체 누적 매출은 불과 3개월 만에 183백만 원에 이르러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지난해에는 홈쇼핑(T커머스) 중심

으로 판매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오픈마켓 할인쿠폰 방식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지원 방식의 변화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채널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확인됐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짧은 기간에도 매출 성과가 두 배 이상 성장한 것은 지원 방식의 전환과 참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개공, 2025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전북개발공사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디지털 기술나눔을 통한 지역 디지털혁신 확산 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 변화와 혁신 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사는 2023년부터 자체 개발한 AI·RPA 기반 챗봇 시스템·자동화 프로그램 등 공공기관·민간에 무상 이전하는 디지털 기술나눔을 해왔다.

단순 배포가 아닌 △기술 설명회 △소스코드 공유 △도입·설치·운영 무상 지원하여 지금까지 30여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 중 도내 3개 공공기관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일부 기관은 기술이전 이후 자체 AI 챗봇을 구축해 운영하며 추가 설명회를 주관해 다른 기관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기술 확산의 선순환 모델을 실현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김대근 사장은 "지방에서도 주도적으로 디지털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수상의 의미"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진흥원, 전북 농생명 대표기업 교류회 · B2B상담회 개최

품무원 · CJ프레시웨이 등 대기업 바이어 초청 · 전북 기업 연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6~27일, 전북 농생명분야 대표기업의 동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25 대표기업 교류회 및 B2B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자치도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을 비롯해 지역 농식품 대표기업 40개사와 국내 주요 바이어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첫날인 26일에는 옹고집, 무주 덕유산반딧불 등 지역에서 굳건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대표기업들의 우수

사례 발표와 함께 각 참여기업별 소개, 판로 정보 공유 등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둘째 날인 27일에는 품무원, CJ프레시웨이, 롯데쇼핑, 회장물산 등 국내 주요 유통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대표기업들과의 1:1 B2B상담회가 진행됐다.

유망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총 30개사가 바이어별 관심기업을 우선 상담하면서 납품 가능성을 높였으며,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현장상담도 운영됐다.



전북은행-기술보증기금, 기술주도 균형성장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7일 기술보증기금 본점에서 기술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은행과의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내 제약, 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진행한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을

비롯한 6개 지방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지역별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 보증과 대출을 연계한 금융지원으로 총 1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 촉진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은 "이번 협

약을 바탕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상용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에서 안정적인 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들이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진협 전북 임근홍 회장 등 수상

2025 건설의 날 맞아 산업포장 · 국토부장관 표창 수상

2025 건설의 날을 맞아 대한전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임근홍 회장((유)유림건설 대표이사)과 (유)성지토건 박찬용 대표이사는 지난 30여년간 도내에서 전문건설업체를 경영하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건설시공 사후관리로 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토목분야 특강기술자로 우수한 기술력과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제점 개선에 앞장서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근홍 회장은 "이번 수상은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모든 전문건설인들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정상화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전문건설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건설의 날' 행사는 국가산업의 근간이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설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오상근 기자

2025 건설의 날을 맞아 대한전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임근홍 회장((유)유림건설 대표이사)과 (유)성지토건 박찬용 대표이사는 지난 30여년간 도내에서 전문건설업체를 경영하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건설시공 사후관리로 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토목분야 특강기술자로 우수한 기술력과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제점 개선에 앞장서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근홍 회장은 "이번 수상은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모든 전문건설인들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정상화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전문건설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건설의 날' 행사는 국가산업의 근간이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설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오상근 기자



제12차 '농촌다움 포럼' 개최

전북 광역지원기관-농진청, 현장 체감형 계획수립

전북 광역지원기관(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은 13개 시·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 체감형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 26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제12차 '농촌다움 포럼'을 개최하였다.

'농촌다움 포럼'은 농식품부와 농진청 공동으로 2022년 6월부터 개최해 온 포럼으로 이번 12차 포럼은 전북 광역지원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현장에서 바라본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으로, 전북도 시군 농어촌공사 중간지원조직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을 통해 현장체감형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등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오상근기자

특히 이번 행사에서 전북광역지원기관은 광역 및 기초지원기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농촌공간계획제도 설명(농식품부), △KRC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TF운영현황 및 농어촌체류형센터(다들촌조성사업) 사례발표(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방안(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순창군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특화지구 사례 발표(지역계획연구소 누리), △공개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김동인 본부장은 축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전북농촌광역지원기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